

## 교회건축의 형태 표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Form in Church Architecture

조 동 제\*    김 종 영\*\*  
Dong-Je Cho    Jong-Young Kim

#### <Abstract>

Forms provide meaning and deep correlation with human life. All religion has symbolity through form expressions. The symbols of christianity is architectural interpretation to express the symbol of glories. Form expression was investigator from architectural design. Expression is regarded as important from the view of forms. Form expressions are the motivation of expressing religion as an architectural factor. Form expression is one of proassing from architectural position. Also it is the basic data of expressing glory from the architectural designer. So planning of church should be the harmony between city view and acceptance of love.

*Key-words: form, expression of form, church, symbolity*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Lewis Mumford는 예술의 의미를 외적인 수단들이나 결과들이 아니라 예술은 독특한 인간적 요구를 재현하며 인간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특성인 상징화의 능력에 기초한다고<sup>1)</sup> 말하며 예술의 목적 역시 인격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며 공감과 감정이입이 예술특유의 방법들로써<sup>2)</sup> 필히 도덕적 가치나 종교적 가치는 중심적 가치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부수적인 것이며 예술은 인간을 위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세계를 창조해 내려는 인간적

요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sup>3)</sup> 곧 표현은 우리의 미적 감각을 충족시켜 주며 미적 감각은 우리의 감각적 지각에서 형식상 통일이나 조화를 인식할 때 충족되며 인간이기에 표현성은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의미의 세계에 살고 있는 가치 있는 세계, 상징의 세계에 사는 동물이다.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인간의 세계는 형성되어 왔고 또 형성된다. 가치가 없는 곳에 의미도 없고 인간적인 세계도 없다. 이 인간적인 가치의 세계를 문화의 세계라 할 수 있다.

형태는 인간의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고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즉, 모든 종교는 형태 표현을 통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 정회원, 대경대학 건축디자인과 조교수

E-Mail chodj@tk.ac.kr

\*\* 정회원, 계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박

704-701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오늘날 기독교의 상징들은 거룩함을 상징하기 위한 건축적 해석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회건축의 의미를 살펴보고 교회 예배 공간의 거룩성으로서 그 표현은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연구는 교회건축 계획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시하며 건축 계획 방법론적 접근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교회건축의 형태 표현은 기독교 교회건축에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건축에 나타나는 형태 요소를 파악하여 미래의 교회건축에 계획적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건축 잡지에 소개된 교회 건축과 성경 및 찬송가에서 표현된 의미를 살펴보고 교회건축의 입면형태에 표현되고 있는 표현 양태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종교의 의식

종교는 인간만이 가지는 고도의 문화적 행위이며 종교의 의식에는 크게 감정적 측면과 지적인 측면이 있다. 감정적 측면은 종교적 의례에서 감정의 발산 즉, 경이·존경·갈망·사랑·흥분 등의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이며 슐라이에르마하(Schleiermacher)는 그 영원·무한한 자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감정이 핵심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종교가 자칫 신비주의나 쾌락주의 감정주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학이란 아무리 초보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지적인 행위이며 합리적 요소가 개입되는 행위이며 합리적 요소가 개입되는 행위이다. 이렇게 본다면 감정적 요소의 지나친 강조나 지적인 요소의 지나친 강조가 다 같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두 가지의 조화만이 종교의식에서 바람직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얻게 된다

### 2.2 종교적 의미로서 건축 양상

건축은 인간의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양식으

로서 인간의 문명을 구현하여 왔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정신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건축물은 종교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종교란 시대에 따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시대정신의 집약 체인 것이다 따라서 종교건축에서는 신에 대한 개념,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읽을 수 있으며 신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변하듯이 종교건축도 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집트의 경우는 제사장과 왕후가 신·정(神·政)절서의 대표로서 제사장은 구원을, 왕후는 명예라는 두 과제를 각기 예술에 요구했으며 그들은 원시종교의 핵심을 이루는 사자(死者)승배 사상에서 일치점을 찾게 되었다.

제사장은 왕이나 제후들을 자신의 세력 범위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을 자신의 세력 범위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을 신격화하는데 동조했으며 왕후들은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사장과 신을 위한 사원의 건립에 동의했다.

그리스인들은 전통적인 종교나 법에 대해 자유분방한 관계를 갖고 인간을 시대의 이상(理想)으로 여기는 개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예술은 종교적 요소를 별로 내포하지 않고 있으며 종교사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종교와는 단지 외면적인 관계 밖에 없는 듯하다

신(神)의 상(像)이나 무덤을 장식하는 기념물은 종교적 감정과는 하등 관계가 없고 종교 예식상의 전통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지 않다<sup>4)</sup>

따라서 종교 건축에서도 신전은 신앙의 집이 아니라 신들이 살고 있는 성소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며, 성전 건물이 쓰이느냐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미적인 관계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

그 결과 내부 공간의 형성보다는 외부공간의 구성에만 주력하였고 형태 표현적인 축이나 절대적인 배치 원칙에 다름없이 자신들의 지적경험이 자연과 조화·절서의 관계를 갖게끔 배치 계획을 택하였다

로마에 있어서도 신전을 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구역으로 생각되었고 신전은 신앙의 안식처로서 뿐만 아니라 개선하는 원정군이 갖고 돌아오는 전리품의 전시장소로서도 이용되었기에 넓은 내부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건축물은 규모의 웅장함과 디자인의 대담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있다<sup>5)</sup>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된 이후 로마뿐 아니라 콘스탄티노플과 성지 그밖의 중요한 지역에 교회당이 건립되면서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는 이교도의 법원 성격이던 바질리카 형태를 차용하게 된 교회당은 단순한 집회장소 개념 이상의 종교적 의미를 요구하기 때문에 바질리카 평면에다 제대에 새로운 초점을 부여하고 측면에 있던 입구도 서쪽 끝으로 옮겨 놓았으며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는 기둥이 사면(四面)에 늘어선 중정(Atrium)을 가로 질러 입구에 들어가게 하는 등<sup>6)</sup> 절충과 변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동양의 비잔틴 양식에서는 바질리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돔을 사용하는 Greek cross 형식이 지배하게 되는데 바질리카식 평면을 애호하지 않을 황제의 정치적 권위와 신의 정신적 권위의 결합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sup>7)</sup>

중세에 와서 비로소 신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으며 신성(神性)이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문화를 지배하게 되었고 사회는 교회 중심으로 조직되고 시대의 이상은 정신적인 힘을 추진하는 일에 모여졌다

르네상스시대에는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사라지고 현실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어 종교건축물보다 세속건축물의 축조가 많았고 교회건축은 고딕건축에서와 같은 '돌에 의한 초월론'이 아니라 거대한 돔과 대리석에 의한 현실주의적 세계상을 나타내고 있다

원은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이고 완전한 형태이며 신적 이성의 직접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종교 건축의 평면설계는 원형 내지 원형으로부터 유래되는 형태 즉, 정사각형·육각형·팔각형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알베르티의 건축론이 발표된 이래 종교건축에서는 중앙집중형 성당 평면이 새로운 경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바로크시대에는 카톨릭의 강력한 반 종교개혁운동에 힘입어 신고세력에 대해 카톨릭의 권위를 재 주장하고, 권력·재력을 표현하기 위해 회화나 조각 뿐 아니라 건축에서도 강렬한 감동이나 극적 체험을 유도하는 심한 요철·음영이 강한 벽면 등을 사용하고 있다 평면의 형태는 운동개념과 중심개념이 중첩된

타원형을 주로 쓰고 있다.

## 2.3 교회의 본질과 행위

### (1)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교회를 나타내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으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상이 대표적이며<sup>8)</sup> 신앙 공동체인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임의 장소로 표현된다

예배의 사전적 의미는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는 예배의 본질을 표현하는 데에 특별한 이의 없이 수용되고 있기도 하다.

성서적으로 볼 때 먼저 구약에서는 예배의 의미를 표현하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봉사, 섬김)'라는 말과 '샤하아(굴복, 자신을 엎드림)'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신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 맞추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예배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지극히 낮춤으로써 그를 섬기는 행위임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배'라는 말은 원래 'worship'이라는 영어를 번역한 것으로서 이 말은 원래 가치(worth)와 신분(ship)이라는 말의 합성어인 앵글로색슨어의 'werthscape'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교회적으로 구체화시키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sup>9)</sup>을 의미하게 된다.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시 29:2)" 혹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계 5:12)"라고 표현된 바와 같이 성서의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즉,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회에 있어서 예배의 본질은 한층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적 발전의 기저에는 예배가 단순한 헌신적 의식에 한정되지 않으며 예배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communion)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내재하고 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은 크게 예배, 선교, 친교, 봉사, 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사명들은 현대의 교회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또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기 때문에 교회건축을 계획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 (2) 교회 내에서의 행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교회의 사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교육적 필요공간은 이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공간 내에서의 행위는 그 공간이 이용되어야 할 목적을 이해하고 또 공간의 목적 확정은 교회건축에서 수용이 되어져야 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뿐이다.

교회 내에서의 행위는 앞에서 언급한 다섯가지의 사명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으며 이러한 사명은 서로 유사한 관계성을 지니며 중요성 또한 크다 이것은 행위요구에 따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즉 봉사의 행위, 친교의 행위에 의한 요구에 중점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이들로 인하여 유사한 행위와 공간의 융통성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 3. 교회건축과 공간 표현

### 3.1 상징성의 의미와 표현

인간을 “상징의 동물”로 정의한 철학자인 Cassirer는 상징 작용을 인간 정신 활동의 본질로 간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징 작용의 원리로서 3차원의 상징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즉, 표출(presentation), 재현(representation), 의미(meaning)이며 이것은 예술작품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sup>10)</sup>

상징은 의미의 세계로서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또는 현실과 현상을 매개하는 기능을 지닌다 그리고 언제나 인간정신의 심벌로서 그 본질은 동적인 조화이며 널리 인간 생활에 의미를 주는 인간의 생명과 의미관계를 가진 것이다.

이러한 상징에 의해 표현된 것은 깊은 통일과 연결을 나타내는 상징적 언어로서 정신세계를 나타낸 것이다<sup>11)</sup>

이른바 상징이라는 용어는 관습적이고 분명한 의미 이외에 어떤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 즉, 우리에게 숨겨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뜻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어떤 현상이 직접 나타내는 분명한 뜻 이외의 어떤 뜻을 암시한다면 그것은 상징이다 그것은 정확한 정의도 내려져 있지 않고 충분한 설명도 되어 있지 않은 광범위한 뜻에서 “무의식(Unconscious)”의 측면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무도 정의할 수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이 상징을 따라가면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관념(ideas)에 도달한다.<sup>12)</sup> 곧, 상징들은 사물들을 지시하고 사실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물의 본질과 더불어 사고하는 상징은 유사성·상호관련성을 갖지 않는 두 사실을 매개시키는 인식이며 그 결과로서 상징은 의미를 지시하고 동시에 개념 전달을 위한 도구로서의 개념이며, “사유와 존재”사이의 거리를 메워 주는 도구가 된다.<sup>13)</sup>

### 3.2 공간 표현의 접근체계

형태표현의 체계에 따른 사고는 아이들, 시인, 정신착란증 환자만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공존하며 형태는 다른 인식 수단으로는 전혀 포착할 수 없는 현실의 심오한 양상들을 밝혀준다<sup>14)</sup> 이는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으며 어떤 기능을 다하고 있다

#### (1) 중심과 장소성

흔히 세계의 중심이라고 간주되는 곳에는 세계 축을 수직으로 상징하기 위해 수목이나 주신(柱身)등으로 구상화 시켰고 높게 솟은 산악(山岳)은 하늘과 땅을 잇는 점점으로 삼았던 예를 볼 때 태고부터 인간들은 전 세계를 중심화(中心化)된 존재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대 회랍인들은 Delphi에 있는 Apollon신역의 반원 형식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 했고 고대 로마인들도 로마 시에 있는 캠퍼돌리오 언덕을 세계의 정상이라 보았으며<sup>15)</sup> 이슬람교도들 역시 Kaaba신전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았던 사실과 그리고 고대 근동 사람들이 땅은 둥글고 편편한 원반이며 이 땅을 모든 창조계의 중심점에 위치하여 이른바 아랫물에 의해

에 위싸여 있다고 생각하던<sup>16)</sup> 사실들이 중심화된 세계에 대한 사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심의 개념이 건축적으로 볼 때는 장소 즉, 특정한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이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인간의 행위는 특별한 장소와 관련되어 의미를 부여받게 되며 그 장소는 우리 자신을 정위(定位)하고 환경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기점이며 출발점이다

장소는 내부와 그 것을 둘러싸는 외부로서 체험하게 되는데 근접관계, 중심관계, 개폐관계들이 동시에 작용할 때 실존적인 관계로 해석된다. 메스는 중심·목표와 같은 개념으로서 메스를 적립시킴으로써 공간은 이를 중심으로 집중화 된다.<sup>17)</sup>

## (2) 형태 표현적 상징성

인간은 말과 글로써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지만 말과 글보다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를 형태표현으로 나타내 상징의 기법을 사용해왔다. 상징이라 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의미를 즉시 알아듣게 해 주는 언어로서 다시 말해서 관념을 유희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상징화의 현상을 상징과 상징되어지는 대상의 상대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상징이란 기호와는 구별되며 자체 안에 상징되는 대상이 현존하게 되며 이를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여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종교적 인식에서는 형태 표현적 상징성은 성역 구성의 본질을 이루며 여기서 말하는 상징되어지는 것이란 물론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다.<sup>18)</sup>

## (3) 방향성과 통로

모든 장소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이 갖는 질적인 구별, 즉 수직방향은 상승을 하락을 의미하였다.

Erich Kastner는 산에 오르는 것을 속죄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sup>19)</sup> M.엘리아데는 성산(聖山)이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세상의 중심에 자리하고 거룩한 자리나 사원(寺院)은 지축(axis mundi)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계(地下界)가 만나는 지점으로 간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직성이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강한 상징 표현인 반면 수평방향은 인간의 행동세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이 강하다.<sup>20)</sup> 방향성 속에는 공간 및 시간의 흐름에 구조에 의해서 운동감을 불러일으킨다.<sup>21)</sup>

다시 말해서 공간을 조직화하는 축선(軸線)은 실제적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예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와 관련시키는 하나의 상징적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구심적인 힘과 원심적인 힘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으로부터 생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장소와 통로의 방향성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여기서 위계적 질서를 가지기 위해 공간은 기능별로 분절, 독립, 연속되어 짐으로써 방문자가 그 통로를 지날 때 지각적 경험상으로 정서적인 절정 또는 성(聖)의 공간으로서 구성되며 이는 공간구성이 일정한 축(軸)을 통해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며 위계 성을 나타내게 된다.

## 3.3 교회건축의 당위성

인간은 질서화의 체계를 가시화함으로써 세계를 질서 있게 하는 것 즉 환경을 건조하는 일이 강조되는 일은 건축에서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건축의 필수적 단계는 환경의 질서화 및 조직화이다.<sup>22)</sup> 이러한 현상은 공간적인 국면과 시간적인 국면에 서로 맞물려 작용하며 영향을 준다.

물질적인 공간과 물질적인 사물은 가시적인 관념형성에 공간을 창조하게 되는데 관념형성으로서의 공간은 형태표현을 통해서만 명백하게 될 수 있다. 공간은 상징과 의식에 의하여 변형되어 신성이 가시적으로 되는 것이다.<sup>23)</sup>

건축이 공간의 창조성을 말하듯이 교회건축도 하나의 공간을 창조하는 작업으로 질서와 조화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부여하기 위해 즉, 형태, 크기, 색채, 재료 등의 요소가 절대자에게 나아갈 수 성스러움과 신의 유일성, 영원한 존재, 불변성 등의 형태가 나타나야하며 또한 기능적인 면에서도 합리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교회건축은 예덴동산에서의 무성전(無聖殿)시대<sup>24)</sup> 이후 단성전(壇聖殿)시대<sup>25)</sup>, 성막시대<sup>26)</sup>, 장막시대<sup>27)</sup>, 성전시대<sup>28)</sup>, 교회시대로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 3.4 기독교의 상징적 표현

교회는 다양한 신학적 의미와 해석이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공동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이 취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상징적인 말이나 표시로써 그 의미를 실감나게 표현하기를 원하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교인들에게 교리를 설명하여 주려고 할 때 편리하게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오랜 박해 기간 중에는 그들의 암호로 사용되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이 상징들이 형태요소로 교회 창문이나 교회 비품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전통 및 교훈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그림처럼 나타내어 그 의미를 상징성화 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교훈과 일치되는 형식이나 상징들은 종교생활과 사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적절한 상징 한 개를 사용하는 것이 장식을 위한 상징 백 개보다 좋은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상징성적 형태표현은 어느 누구에게나 경외심과 거룩성, 진실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미이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성경과 찬송가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Table 3-1 성경, 찬송에서 나타난 상징성

생물	성경	공작, 나비, 비둘기, 닭, 양, 소, 주님의 손
	찬송	양, 비둘기, 독수리, 나귀, 주님의 손
사물	성경	십자가, 촛대, 번제단, 방주, 법계, 등불, 세원호(삼이일체), 백합꽃, 가사관과 못, 별, 면류관, 종려나무 잎, 포도송이, 석류꽃, 방패, 창과 검, AΩ
	찬송	십자가, 해(빛), 면류관, 천사, 별 달, 백합꽃, 포도나무, 장미, 등(불), 가사관, 방패, 창검, 나팔, 단비, 불, 황금종, 거문고, 이슬, 햇불, 무지개, 지팡이, 못자국, 열쇠, 나귀, 종려나무잎

### 4.1 사례연구

교회건축은 다른 건축물과는 기본적인 의도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세속인의 마음이 아닌 신에 대한 믿음의 전제가 되는 형태적 표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Table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표현은 건축물의 면형태 표현의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 표현은 크게 일탑형, 이탑형, 무탑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탑의 형태는 또 평면과의 관계성에서 일체형, 들출형, 후퇴형으로 나누며 무탑형에서는 평지붕형, 아치형, 표현형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4.2 종교적 형태표현 표출

인간에 의해 체험되고 있는 외부형태와 공간은 극히 주관적이며 감성적이고 말할 것도 없이 무형인 것이다.

종교적 심볼로서의 감성적 표현은 주로 형태와 공간을 통해서라고 생각해도 좋다. 왜냐하면 형태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분위기나 기분이고, 마찬가지로 종교적 경험에 현저한 성의 체험자체도 논리적이지 않고 극히 감성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표현은 어디까지나 암시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는 것은 강조해야할 점이다. 초월적이고 성적인 것을 재현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 전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기만에 빠질 위험성이 존재하는 사실도 주지하여야 한다.

현상적 표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는 고딕양식을 연상케 되는데 그 이유는 절에 대한 연상이 전통한옥에 있는 것처럼 고딕양식에서 받은 성스러움의 자극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고딕 양식의 교회는 역사적 변천에 따른 탄생이며 인간과 신의 성스러운 만남에 대한 주제적 성격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건축에서 표현되는 종탑은 하늘에 계신 신에 대한 열망과 교회건축의 표식적 역할을 담당하는 고딕 양식의 은유로 사용되고 있다.

5. 결론

종교적 표현으로서 외부형태에 표현되어지는 형태성은 인간이 감성적인 표현에 심취해서 전통을 무시하여 개인의 가치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역으로 전통을 중요시하여 의장적 변화를 사용하지 않아 표현을 이원화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건축의 디자인적 입장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형태론적 입장에서 표현성을 중시하고 있다. 경제성, 중심성, 영역성, 거룩성 등 총체적 입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여야겠지만 인간과 신과 만남인 정신적 지각을 의미하는 형태적 표현은 건축요소로서 교회건축이라는 종교성을 표현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종교 건축 뿐만 아니

Table 4-1 실태조사 교회현황

No	교회명	대지위치	대지면적 (m <sup>2</sup> )	건축면적 (m <sup>2</sup> )	연면적 (m <sup>2</sup> )	규모	외부마감
1	동산교회	서울 판악구 신림동	2,091.85	913.06	4,692.26	지하1층, 지상4층	변색벽돌마감, 반사복층유리, 열선흡수유리
2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 중구 오류동	4,538.4	2,066.05	6,854.04	지하2층, 지상2층	포치석 버너구이
3	서강교회	대전 서구 갈마동	637.5	246.52	1,202.15	지하2층, 지상2층	적벽돌 치장쌓기
4	소망교회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72.3	2,618.16	11,582.16	지하3층, 지상4층	화강석 옥두기
5	수원순복음교회	경기 수원시 인계동	3,158.2	1,828.18	7,935.52	지하2층, 지상5층	적벽돌
6	초원교회	서울 강남구 개포동	1,000	465.83	1,926.67	지하2층, 지상2층	적벽돌 치장쌓기
7	인천순복음교회	인천 남구 판교동	8,206	1,527	6,342	지하1층, 지상5층	적벽돌 치장쌓기
8	임마누엘교회	서울 강남구 방이동	3,487.7	1,556.78	7,515.66	지하2층, 지상3층	화강석, 백색알루미늄, 반사유리
9	잠실교회	서울 송파구 가락동	3,584	1,363.89	4,924.23	지하1층, 지상4층	적벽돌, 아스팔트싱글, 화강석
10	청주서문교회	충북 청주시 봉명동	4,331.2	1,579.6	4,311.4	지하1층, 지상5층	적벽돌 치장쌓기
11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18,825	3,925	13,564	지하2층, 지상5층	화강석
12	학봉교회	충남 공주군 반포면		224.16	434.01	지하1층, 지상2층	수석
13	광주양림교회	광주 서구 양림동	3,780.50	1,169.80	3,142.84	지하1층, 지상3층	적벽돌 치장쌓기
14	귀인교회	안양시 평촌동	687	305	996	지하1층, 지상4층	드라이비트
15	남원동복교회	전북 남원시 동촌동	2,470.74	1,024.91	3,298.44	지하1층, 지상4층	적벽돌 치장쌓기
16	동교동교회	서울 마포구 동교동	475.7	234.38	1,023.14	지하1층, 지상3층	적벽돌 치장쌓기
17	동원교회	서울 동대문구 제기	1,414.2	528.74	2,720.33	지하1층, 지상4층	적벽돌 치장쌓기
18	목산침례교회	서울 양천구 목동	228	113.38	732.12	지하1층, 지상5층	콘크리트위 돌가투 뿔칠
19	삼호침례교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314.6	602.89	4,740.04	지하2층, 지상5층	적벽돌 치장쌓기
20	보문제일감리교회	서울 성북구 보문동	1,446.93	699.79	2,513.48	지하1층, 지상4층	별돌타일
21	봉산교회	대구 달서구 본리동	2,504	1,210	3,302	지하1층, 지상2층	화강석, 본타일
22	분당중앙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동	1,200	588.08	2,435.31	지하1층, 지상4층	조리켓트
23	비호교회	서울 송파구 거여동	1,719	483.30	679.74	지상2층	적벽돌 치장쌓기
24	산호교회	서울 서초구 반포동	1,460.80	701.78	2,868.72	지하1층, 지상5층	적벽돌 치장쌓기
25	팡림교회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80	624	2,355	지하1층, 지상4층	적벽돌 및 조리켓트
26	서초중앙감리교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514.1	198.63	1,801.76	지하1층, 지상4층	적벽돌 치장쌓기, 강석 옥두기
27	성락교회	서울 영등포구 신길	4,733.96	1,962.48	20,643.44	지하2층, 지상6층	화강석, 배이스판
28	성실교회	서울 도봉구 수이동	2,556.58	1,233.57	6,623.18	지하4층, 지상4층	적벽돌치장쌓기, 화강석물갈기
29	세신감리교회	서울 양천구 신정동	660.20	392.59	3,397.45	지하3층, 지상7층	적벽돌
30	수원제일교회	수원 장안구 신흥동	1,825	804.89	4,065.87	지하3층, 지상7층	적벽돌 치장쌓기
31	시흥교회	서울 구로구 시흥동	2,918.95	1,439.87	5,798.69	지하2층, 지상3층	적벽돌 치장쌓기
32	예담교회	서울 성북구 동소문	2,026	890.64	4,392.9	지하1층, 지상4층	적벽돌치장쌓기, 처장콘크리트
33	옥인교회	서울 종로구 옥인동	835.37	415.85	2,194.73	지하1층, 지상5층	적벽돌 치장쌓기, 화강석버너구이
34	월광교회	광주 서구 화경동	3,119	1,108.4	4,158	지하1층, 지상3층	적벽돌 치장쌓기, 화강석버너구이
35	인천중앙교회	인천 남동구 간석동	989.6	468.9	1,592.91	지하1층, 지상5층	변색벽돌 치장쌓기
36	정릉교회	서울 성북구 정릉동	1,960	723	4,097	지하1층, 지상1층	화강석 판재마감
37	주내교회	경기 양주군 주내면	1,998	462.11	534.89	지상2층	물탈위수성페인트, 아스팔트싱글
38	화산교회	경기 포천군 가산면	905	165	195	지하1층, 지상5층	적벽돌 치장쌓기, 원단타일
39	여수성광교회	전남 여수시 연등동	3,036.31	1,321.85	4,836.18	지하2층, 지상4층	적벽돌 치장쌓기
40	동안교회	서울 동대문구 이문	3,529.23	2,026	10,887.02	지하1층, 지상4층	화강석버너구이, 외벽단열시스텐
41	산상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구	635.70	348.59	1,128.49	지하1층, 지상8층	노출콘크리트
42	제자교회	서울 양천구 신정동	1,404	885.40	5,704.94	지하1층, 지상4층	화강석, 갈라복층유리
43	성도교회	서울 중구 회현동	2,731.69	974.07	8,736.17	지하4층, 지상4층	인도사암
44	서라벌교회	경북 경주 선경동	849	428.61	1,499.21	지하1층, 지상4층	적벽돌 치장쌓기, 드라이비트
45	강변교회	서울 강남구 도곡동	1,055.20	614.22	3,355.52	지하2층, 지상4층	화강석, 알루미늄페널
46	태안소망교회	충남 태안군 태안읍	4,696	99.52	2,243.27	지하1층, 지상2층	적벽돌 치장쌓기, 아스팔트 싱글

교회건축의 형태 표현에 관한 연구

라 모든 건축에 표현 될 수 있는 특질이고 이 같은 형태 표현을 계획할 때 고려한다면 건축 공간 형성에 큰 체험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 이를 종교만을 위한 가치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건축과 나아가서는 우리 문화 전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형태 표현은 건축 본연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며 또한 교회건축을 디자인

하는 사람에게서는 종교의 성스러움을 표현하는 기초 자료이고 그리고 도시경관에 조화되는 사람의 표용력을 지니는 교회가 계획 되어져야 할 것이다 조사교회에서는 무담 표현형이 21%, 별동 담형이 10%, 다음으로 일담식 중앙 출입형, 수직 표현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회 건축물의 형태 표현에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 집약되어 진다.

Table 4-2. 실태조사 교회의 입면 형태

담 의 개 수	담 의 위치	진 입 의 위치	입면의 형태	담 의 형태	사 례	비 고
일 담	좌측 일담형	담 출입형		일치형		
				돌출형		
		중앙 출입형		일치형	7,29,33	
				돌출형	31,35,36	
	우측 일담형	담 출입형		일치형		
				돌출형	15,25	
		중앙 출입형		일치형	30,40	
				돌출형		
				후퇴형		
				일체형		
담 식	중앙 일담형	좌·우 출입형		일치형		
				돌출형		
		중앙 출입형		일치형		
				돌출형		
		수직(구조) 표현형		일치형	6,24,34	
				돌출형		
	별동 담형	공간 표현형		일체형	32	
				분리형	2,12,21,23,39	
		수직(구조) 표현형		일체형	3,45	
				분리형	4,43,46	
양 담 식	좌우 양담형	좌측형		일치형	17	
				돌출형	20,22	
		우측형		일치형		
				돌출형	13	
	좌·우 첨탑형		일치형	11		
			돌출형			
무담 식	무담형	박공형		일체형	16	
				분리형		
		아치형		일체형	38	
				분리형		
		표현형			9,10,14,18,19,26,27,37,41,44	



참 고 문 헌

- 1) 김문환 역 예술과 기술, 을유문고,1979,p.25
- 2) 백기수 역, 미론, 정음사, 1977, p.129
- 4) A Hauser, 백낙청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고대 중세편, 창작과 비평사, 1985, p. 40.
- 5) Janson, H.W., 김윤수역, 미술의 역사, 삼성출판사, 1985, pp. 148-149
- 6) Ibid, p 187.
- 7) Ibid, p.196
- 8) 교회는 하나님의 발(고전 3:9), 하나님의 성전(벧전 2:5, 엡 2:21), 하나님의 집(딤후 3:15), 그리스도의 신부(계 21:9, 엡 5:26)
- 9) Affa, Raymond, 허경채 역, 「Principle of Christian Worship」 대한 기독교서회, 1978, p.11
- 10) E Cassirer, 김병옥 역, 인간론, 대양서적, 1975, pp.168-201
- 11) E Cassirer, 최병관역, 인간이란 무엇인가?, 전망사, 1982, p.219
- 12) Carl G, Jang, 조승국역, 인간과 상징, 범조사, 1981, p.25
- 13) 이상권, 근대미학에서의 상징의 개념, 홍익대 석사논문, 1982, p.15
- 14) Mircea Eliade, 이재실역, 이미지와 상징, 까치, 1998, p.15
- 15) Shultz, N C,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 산업도서, 1988, p.15
- 16) 김윤주 역, 성경과 오늘, 분도출판사, 1977, p.53
- 17)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1991, pp.34-35.
- 18) 최춘환, 중세 도서 종교건축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중대석사, 1980, p.56
- 19) 김광현 역, Op.Cit. p.40
- 20) Ibid, p.42
- 21)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기린원, 1988. p.495
- 22) 유일주 외 9인역, 건축학 개론, 기문당 1983,
- 23) Ibid, p.28
- 24) 에덴동산에는 성전이 없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같이 살았기 때문이다.
- 25) 돌단(춘20:25), 토단(출20:24), 금단(대하4:19), 놋단(왕상8:64), 백향목단(왕상6:20)등으로 바뀌게 된다.
- 26)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은 성전과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 27) 40년간의 이동 후 정착한 유대인들은 12지파로 분산되면서 성막이 사라지나 후에 다시 성막은 복원되고 다윗왕때는 기브온에는 제단이 있는 성막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법궤가 있는 장막이 있었다
- 28)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사용되었던 성막은 가나안 정복 후에는 터로 만듦 필요가 없었고 이동이 필요 없기 문이다 솔로몬 성전(대하3:1-2), 룻바벨성전(스5:1-2), 헤롯성전(마24:1-2)이 있었다

(2003년 9월18일 접수, 2004년 8월20일 채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